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친교 안내

이번주부터 친교 모임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한 달에 한 번(매월 첫째 주)으로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꽃 봉헌해 주신 분들〉

김명숙 글로리아, 최영숙 에스터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 13일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24일(토)

비용 : \$3,780 신청비 : \$1,500

코스 : 이집트(룩소, 시나이),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그리고 김 레지나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안내

레지나 구역이 로사리아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구역장으로 권혜원 로사리아 자매님이 선출되어 앞으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 구역 모임

엘리사벳 구역 : 8월 4일(토) 오후 7시에 정경재 엘리사벳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이번달 상품권판매는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라파엘 구역 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의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평의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49)
제1독서	예레미야서 23, 1-6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에페소서 2, 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마르코 6, 30-34
봉헌성가	214번 주께 드리네 (512)
성체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500)
퇴장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22)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16주일 7월 22일	연중 제17주일 7월 29일	연중 제18주일 8월 5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제2독서	황선동 스테파노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친교봉사			

오늘의 묵상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환산하다 보면 복음의 가치들도 물질적 척도로 평가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물질적 평가와 보상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군중은 가난한 이가 부를 얻고, 병든 이가 치유되고, 불의한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게 바뀌기를 기대하며, 복음이 세상 속에서 내는 효과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대감이 커질수록 복음이 지닌 내면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기신 복음 선포는 능력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평화와 자유의 길이기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 안에 ‘쉽’을 통해 그것을 깨닫도록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신성한 노동이 고된 노역으로 전락하고, 기쁜 봉사가 피하고 싶은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 내가 선택한 삶이 잘못된 판단처럼 여겨지고, 희망찬 내일이 두려운 미래가 되는 불안감에 빠질 때, 우리는 잠시 외딴곳에서 쉬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 내가 가진 재물과 세속적 권력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나의 위선과 기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으로 갈라져 적대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물론, 우리가 지닌 내적 모순을 십자가를 통해 화해시키시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합니다. 흩어진 양들을 이끌어 줄 목자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어 줄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굳은 믿음과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2분 교리

병자 성사란? Anointing of the Sick

병자성사란 질병과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희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병과 고통으로 허약해진 마음과 신앙을 굳세게 하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우리들의 주일정성 <7월 15일(일)>

봉헌금	\$325.00
교무금	\$260.00
	김성철(7), 최영숙(4-7)
매일 미사책 판매금	\$115.00
Total	\$700.00